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더블류 유진 헨스 회장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저는 이 직책에 부름을 받기 전에 거의 9년 동안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아주 흐뭇했던 일 중 하나는 결혼을 목전에 둔 스테이크 회원들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접견 목적 중 하나는 그들이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여 함께 보금자리를 꾸밀 준비를 시작하는 데 영적으로 도움이 될 것을 권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중에 어떤 사람들은 도전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고 불리는 매우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삶의 과정을 잘 설계해 나가도록 돕기 위해 주어진 여러 계명과 성약과 가르침에 압도당하고 마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전 저는 우연히 삶에 관해 정의한 어떤 분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 있는 리차드 엘 이반스 장로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반스 장로는 “삶이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나가는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이 지상에서 영원한 가족을 새로이 출발시키는 그 훌륭한 젊은이들에게 제가 어떠한 권고를 했을까요?

저는 대개 우리가 잘 아는 성구인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인용하면서 권고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만일 그들이 맡게 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섬기겠다는 참 소망과 각오로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찾게 되리란 점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젊은이들이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했다면, 필요로 하는 인도와 지시를 받게 된다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목적과 의미가 있게 될 것이며 그들은 이 사회에서 “받는 사람”과는 반대가 되는 “베푸는 자”의 무리 가운데 속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족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게 될까요? 여기에는 분명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것들 또한 다양합니다. 이들 예비 신랑 및 신부들과 잠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저는 행복하고 영적인 삶의 초석이면서 그 근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관해 권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을 주관할 도덕적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어떤 행동이나 재능을 중요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면 고수해야 할 기본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반 원리들을 토론하기에는 시간과 지면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원리에 대해 토론하고 싶습니다.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어떤 훌륭한 사람들은 이를 아주 어려운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일요일마다 이날 무엇을 할까에 관해 결정을 내리려 합니다. 그들은 모임에 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자는 것이 좋은지를 자문합니다. 그들은 지난 주 동안 직장 일로 혹은 공부나 기타 일로 바빴을 것이고 부부가 함께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같이 있어 줄 시간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요일이야말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일요일은 쉬는 날이며, 춤고 음산한 날씨에 일찍 기상해 일련의 모임에 참석하려고 교회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진정한 휴식이 아니라 합리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식에서 말씀을 하기로 되어 있는 연사가 그들이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일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에 어디 있어야 하는지에 관해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이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내 성찬을 바칠지이다."(교리와 성약 59:9)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일요일마다 모임에 참석하도록 명하신 점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인간은 다소 빨리 망각하는 속성이 있음을 아십니다.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약의 백성이고 주님의 교회 회원들로서 의무와 사명이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성찬을 취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엄숙히 약속합니다.

우리가 소속 와드나 지부에서 멀리 있거나 휴가중 일 때도, 주님은 우리가 모임에 참석하길 기대하십니다. 연사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찬을 취하고 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여행 또는 휴가를 갖도록 기회와 방법을 허락해 주신 그분께 감사를 표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이 있겠습니까?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 여러분은 지부나 와드를 열심히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계명과 더불어 순종 역시 우리의 능력으로써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평화"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모두 일요일마다 교회 모임에 참석해 모임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에 충분할 만큼 예지가 있고 근면하길 간구드립니다. □

명예 총관리 역원인 조셉 앤더슨 장로님 별세



교회의 명예 총관리 역원인 조셉 앤더슨 장로님이 1992년 3월 13일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별세하셨다.

향년 102세로 타계하신 앤더슨 장로님은 이제까지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신 분 가운데 가장 장수하신 분이다.

앤더슨 장로님은 대관장단 비서로서 오랫동안 봉사했으며, 1970년에 십이사도 보조로 부름받으셨고, 1976년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이 되셨으며, 1978년에 명예 총관리 역원이 되셨다.

1889년 11월 20일에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출생하신 앤더슨 장로님은 1911년부터 1914년까지 스위스 및 독일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귀환 후

유타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1922년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비서가 되셨다. 그후 앤더슨 장로님은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맥케이 대관장은 앤더슨 장로의 은사이셨음),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 및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의 비서로 봉사하셨다.

앤더슨 장로님은 자신이 장수하는 비결을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다. 장로님은 90이 넘어서까지 규칙적으로 수영을 하심으로써 건강을 유지하셨다.

앤더슨 장로님은 1915년에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노마 피터슨 자매님과 결혼하셨으며, 앤더슨 자매님은 1985년에 별세하셨다. □

위로받기 위해 인간이 스스로 만든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나, 인간을 지상에 보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으며,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참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장로교회에 다녀보았지만 1년이 넘어도 신앙은 자라지 않았고 제 생활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교사의 방문을 받게 되었고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역시 집집마다 방문하는 다른 종교인과의 성경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여를 지내는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다른 종교인과의 연구를 그만 두어야겠다고 판단하였고 그분들에게 더 이상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선교사들과의 토론에서도 의문점이 많았지만, 그들은 아주 충실히 대답해주었고 자주 집에 들러서 의문점이 있는지 물었고 대답하기 힘든 것은 집에 가서 연구해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한 달 반쯤서부터 저는 교회에 가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하여졌습니다. 전세에서의 영의 생활, 예비된 지상 생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뒤 가게 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요셉 스미스의 간증, 어떤 형제님 댁 대문에서 본 “가정은 지상의 천국”, 조상을 위한 대리 침례, 영원한 결혼, 지혜의 말씀 등을 배우면서 참으로 강하게 이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기도하기를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만 믿게 하지 마옵소서.” 하였습니다. 보기 좋아

영생을 맡긴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이처럼 마음으로는 강하게 이끌렸으나 제 머리는 지꾸만 의문이 생겼죠. 세상 지식과 세상의 판단 기준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이 무렵 저는 가슴과 머리가 너무 아프고 복잡해서 차라리 가슴을 떼내어 이 갈등과 통증을 그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고, 두통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영생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선교사들은 절 위해 자주 금식 기도를 하였고 제가 꼭 복음을 받아들여리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의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또 큰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새벽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는데 다음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 : 1~3, 14)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저는 무릎을 꿇고 저를 위해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으로써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서 침례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잠시나마 내게 임하신 성령이

참 하나님, 참 믿음



전명순(부산 대신 와드)

제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곧 떠나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침례를 허락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침례에 대해 목표를 세우고 남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하나님께 간구드렸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대화가 안될 때 해왔듯이 편지로써 그를 설득했습니다. 편지를 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도 물론 잊지 않았죠. 출근하는 남편 양복 주머니에 편지를 넣었는데 그가 퇴근할 무렵 전화로 침례를 허락하노라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온종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춤추고 싶었고, 고함지르고 싶었습니다.

11월 3일이 침례 받기로 한 날인데 2일에서야 허락을 받았지만 저는 어서 침례받고 싶은 생각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거할 수 없다는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을 참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회개하여 보냈습니다. 드디어 11월 10일 침례를 받았고 신권을 가진 장로님들로부터 성신의 은사를 받았을 때는 참으로 성령이 임하심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경전을 읽고, 찬송가를 들으며, 이전에 결코 할 수 없었던 타인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굳센 믿음과 완전한 삶을 살고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과 같은 왕국에서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

* 4월호 기사 정정 *

4월호 67쪽의 교회 출판물 소식 중 카세트 테이프의 가격은 6,000원, CD의 가격은 10,000원으로 각각 정정합니다.



선교사 훈련원 제138기

(1992. 3. 16 ~ 1992. 3. 28)

〈성명〉	〈출신지〉	〈선교부〉
임미선 자매	전주 S/정주 B	서울 선교부
김수정 자매	동 S/미아 W	부산 선교부
이영춘 자매	서울 서 S/괴천 B	부산 선교부
류영선 자매	청주 S/복대 W	대전 선교부
박은경 자매	서울 S/삼청 W	대전 선교부
이승두 장로	부산 서 S/창원 B	부산 선교부
심인섭 장로	전주 S/중앙 W	서울 선교부
장진규 장로	강서 S/신길 W	대전 선교부
이대학 장로	부산 서 S/괴정 B	대전 선교부
이경준 장로	강서 S/신정 B	대전 선교부
임창섭 자매	강서 S/신정 B	대전 선교부
남지원 자매	광주 S/충장 W	서울 서 선교부
김정희 자매	부산 서 S/마산 W	서울 서 선교부
이남옥 자매	광주 S/금성 B	서울 서 선교부
이주는 자매	서울 S/삼청 W	부산 선교부
최명엽 장로	동대문 S/태능 W	대전 선교부
김지태 장로	부산 S/신정 W	서울 선교부
손범석 장로	동대문 S/면목	대전 선교부



앞줄 왼쪽부터 임미선, 김수정, 이영춘, 류영선, 박은경 자매. 가운데 줄 왼쪽부터 이승두, 심인섭, 장진규, 이대학, 이경준, 임창섭 장로. 남지원, 김정희, 이남옥, 이주는 자매. 뒷줄 왼쪽부터 최명엽, 김지태, 손범석 장로.